

성 브루노 사후 900주년을 맞이하여

카르투시오 수도원장에게 보내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서신

친애하는 카르투시오 수도원장 Marcellin Theeuwes 신부, 장상들과 모든 수도회 식구들에게.

1. 카르투시오 식구들이 그들의 창설자 사후 900주년을 축하하는 이때에 그들과 함께 성 브루노를 교회 안에서 탁월하고도 중요한 사람으로 들어 올리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베드로의 사찰에 대해 여러분이 성실한 증언으로 맞이한 데에 대해 열렬한 기도로 감사를 드리며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를 가진 카르투시오회의 기쁨을 기꺼이 나누고자 합니다.

1101년 10월 6일에 브루노는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이 사라지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환희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가 많은 애정을 쏟은 Calabria에 위치한 Santa Maria della Torre 수도원 형제들은 이 “dies natalis”가 굉장한 영적 모험의 지평을 열었고 오늘 날에도 여전히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브루노는 초기 유럽, 유럽을 뒤흔든 문화 종교적 대변동의 목격자였고 내부적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실현하기를 원했던 개혁의 설계자였습니다. 브루노는 존경 받는 교수가 된 이후에 홀로 완전하신 하느님 한 분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자 하는 소명 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느님 만큼 선하신 것이 있나?” “하느님 말고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나?” 이러한 지복지선을 깨달은 고결한 영혼의 비길데 없는 찬란함, 광채, 이름다움은 천국 같은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은 하느님을,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언제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뵈을 수 있을까?”

타고난 이 갈망은 성령에 대한 끊임없는 귀 기울임을 통해 브루노를 그의 첫번째 동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독안으로 이끄시어 친밀한 사랑 안에 그들을 당신과 하나 되도록” (카르투시오회 회헌).-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유리한 곳에 은수자적 삶의 형태를 고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브루노는 광야의 그러한 삶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지고의 소명을 결코 잊지 말라” (봉헌 생활, n.7) 고 초대합니다.

교황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그의 계획을 잇은 브루노는 교회에 대한 그의 넘치는 감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성함에 이르는 그 여정은 교회에 대한 순명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삶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자아포기로 표현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항상 기쁨과 성실한 찬미로 한결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열

굴이 항상 기쁨에 빛나고 그의 말은 온화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부성애적 강인함으로 모성적 섬세함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성 브루노에 헌정된 장례 문서 서문).

이 장례문서의 섬세한 말들은 관상 수도에 바쳐진 삶의 비옥함을 나타냅니다. 성 브루노의 아들과 딸들은 그들의 창시자를 본받아 스승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인내로운 파수꾼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주를 맞이하도록 항상 기도 중에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격려하는 요청입니다.

2. 하느님 육화의 대사의 해 이후, 성 브루노 사후 900주년 축전은 또 다른 중요성을 지닙니다. “새 천년기 사도적 서한”(In the Apostolic Letter “Novo Millemnio ineunte”)에서 나는 모든 하느님의 사람들, 인생의 의미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교회의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는 복음 말씀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통하여 그들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고 그리스도 인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힘을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cf 새 천년기: “Novo Millemnio ineunte” n.29).

카르투시안 삶을 특징짓는 기도와 관상으로의 소명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희망, 충만함의 의미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카르투시안의 삶에 엄청난 전교적 역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수도원으로 물러나 독방의 고독 안에서 인내롭게 조용히, 카르투시안들은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서 교회를 위하여 혼례복을 짍니다. (묵시록 21,2). 그들은 세상을 매일 하느님께 봉헌하고 모든 인류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합니다. 성찬례의 희생 제사는 사막에서의 삶의 근원이자 극치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구세주의 현존과 세상 속에서의 활동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3. 시험과 믿음의 정화 장소인 사막의 심장부에서 하느님 아버지는 사람들을 소유, 성공, 거짓 행복에 대한 모든 사고 방식과 반대되는 자기 비움의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카르투시안 Guigo는 성 브루노의 이상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그리스도의 본모기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부요를 나누도록 장려하였습니다. (“Sur la vie solitaire” 고독 삶에 대한, n.6).

이런 자기 비움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에 대한 멀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꺾어 냈고, 저는 그 꺾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과 성령에 대한 전적 효력의 증거자인 카르투시오 수도회를 가진 교회는 축복 받은 것입니다.

나는 카르투시오 가족들이 거룩함과 단순성을 통하여 언덕위에 자리잡은 마을처럼, 등잔대 위의 등불처럼 존속하기를 바랍니다. (cf 마태오 5,14-15).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성사에

의해 길러지며 성 브루노와 그 형제들의 기도로 지탱되는 카르투스오회가 전교회를 위하여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희망과 지복지선의 발견 장소로, 기도로부터 힘을 끌어올리는 사랑과 친교가 삶의 한 형태이자 즐거움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장소로 존속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개인의 전생애를 봉헌하는 가시적 형태이면서 때때로 개개인에게 삶의 불안정성을 느끼게도 하는 은둔 생활은 각자에게 오로지 하느님만 의지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은둔 생활은 하느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강화시킵니다.

수도원은 하느님과 형제들과의 영적 친교의 장소이고, 공간과 접촉의 제한은 오히려 복음의 참뜻을 내면화 할 수 있는 잇점으로 작용합니다.

관상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추구는 형제에 대한 사랑,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게 만드는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관상함은 형제적 자비 안에 살고 이는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성 요한은 그것을 상기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1요한 4,7). 성 브루노는 이것을 잘 이해해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느님께 드린 최고 순위를 형제들에게 지냈던 깊은 인간애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 성 브루노의 “dies natalis” 900주년은 나에게 카르투스오회 수도회의 교회와 세상에 대한 무상의 관상과 중재적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 브루노와 그의 후계자들을 본받아 카르투스오회 수도회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최종적인 희망의 달성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교회의 종말론적 특성을 유지해 나갑니다. (cf Vita Consecrata (봉헌생활)n.27).

‘행동’ 이전에 ‘존재’를 먼저 추구하는 다가오는 왕국의 불굴의 파수꾼인 카르투스오회 수도회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 붙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으로 교회에 힘과 용기를 줍니다.

수도회의 축전 이때 즈음에 나는 주님께 수많은 젊은이의 마음속에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카르투스오회 삶의 힘겹지만 자유로운 여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는 소명 의식을 불러 일으키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또한 카르투스오회 장상들이 신생 교회들이 자기의 지역에 수도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요청에 두려움 없이 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지원자들을 성령의 인도로 식별하고 육성하는 것은 육성자들의 편에서는 새로운 고려 대상임에 틀림 없습니다. 우리 현대의 소유와 자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한 강한 향락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는 젊은이들에게 비옥하고 특별한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의 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봉헌하고자 하는 큰 포부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 삶의 복잡성, 심리적 유약, 시간이 지날 수록

약화되는 삶에 대한 충실성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개인의 특성을 포용하는 구조를 지닌 카르투시오의 사막으로 들어가기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등한시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더욱이 육성자들이 지원자들을 내적 자유와 성령에 대한 순종의 길을 따라 인도할 때에는 신중한 주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애의 삶이 봉헌된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서 근본적인 요소임을 알고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일치하며 영적인 풍토와 생활 방식을 개발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거절하지 않고 상호적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초대할 것입니다.

5. 성 브루노의 아들과 딸들에게, 봉헌 생활 ('Post Synodal Apostolic Exhortation, Vita Consecrata')의 마지막에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기억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달성될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더욱 위대한 일을 하도록 보낼 미래쪽을 보십시오" (봉헌 생활 n.10). 세상의 삼장부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가슴에 애기하는 신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나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감소, 입회자들의 감소, 그리고 여러분의 완전한 삶의 선택으로 생기는 몰이해가 여러분에게 당신 수도회의 효율성과 하느님 안에서 신비롭게 열매 맺는 선교를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창설자의 직관적 통찰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카르투시오의 아들과 딸들이여, 그가 말과 본보기로 여러분에게 보여준 영적 여정의 특수성, 확실성과 심오함을 유지하는 것은 성 브루노의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길러진 하느님에 대한 애정어린 지식은 하느님의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한 의미와 융화를 찾아서 그들의 시야를 새로운 인간의 범위로까지 확장하도록 만듭니다. 하느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바쳐진 여러분의 청빈은 그들 형제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종종 달도록 만드는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항변입니다.

구원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진 조용한 십자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여러분의 삶은 모든 인간을 어제와 같이 오늘도 오직 사랑이신 주님께 모든 인간을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교회와 세상을 위한 감동적인 표지이자 변함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존속합니다.

저는 카르투시오의 모든 가족들을 삼천년기 복음전도의 별, 카르투시오의 유일한 어머니 동정마리아 ("Mater singularis Catrtusiensium, Star of Evangelisation of the third millennium")의 중재에 맡기면서 애정어린 사도의 축복을 여러분과 수도회의 모든 은인들에게 보냅니다.